

#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 교사 교육의 방향: 미국 음악교사 교육과정의 다문화 교과목의 분석을 통하여

## Music Teacher Education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Contents in Undergraduate Music Education Curriculum in USA

이가원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Ka-Won Lee(kawonlee@mokwon.ac.kr)

### 요약

21세기 세계인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국가와 인종, 민족들이 섞여 사는 다인종 국가(multi-ethnic society)로 급변하면서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정책, 대중매체, 교육과정의 방향설정의 역할을 하는 막강한 단어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교사 양성기관의 다문화 교육 현황과 함께, 미국의 4년제 대학 10개를 선정하여 음악교육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교과과정과 함께 음악교과교육 영역에서 다문화 교육이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지 개론과정, 연주, 지역, 종족음악학, 지도법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적 원칙에 근거한 음악 수업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교과관련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악곡의 선정이나 지도 방법적 측면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다문화 음악교육 | 음악교사교육 | 교사교육 |

### Abstract

In the 21th century, world citizens have more chances to meet and interact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or ethnic backgrounds than ever before. It is therefore inevitable that multiculturalism has become one of the integral part of music education. Educators in every field should make conscious efforts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for students so that they can adequately cope with these culturally diverse encounters.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in Korea and America. Also it is aimed to figure out the current multicultural music course offerings available for undergraduate music education majors at the selected 10 American Universit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suggest an idea of multicultural-world music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 keyword : |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 Music Teacher Education | Multiculturalism |

## 1. 서론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개개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국가간의 거리는 좁아지고, 소통의 범위는 넓어져 세계가 점차 작아지고 있으며, 세계인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다양한 국가와 인종, 민족들이 섞여 사는 다인종 국가(multi-ethnic society)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다문화'가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1].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정책, 대중매체, 교육과정의 방향설정 역할을 하는 막강한 단어로 부상하고 있다[2].

2010년 말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초등학교 2만 3602명, 중학교 4814명, 고등학교 1624명이 재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국인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26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소수자, 이주자들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 한국 문화 이해 및 한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소수자 적응교육 수준교육이 다문화 교육의 주류를 차지해 왔다[3]. 하지만, 최근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령기를 맞아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유입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동화주의와 함께, 문화적 다원성을 표방하며, 평등과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소수 이주 집단들을 배려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다문화의 상황을 포용하고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다문화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우리 사회 다수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4].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는 다문화 교육의 실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서 현장교사 및 예비 교사를 지원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부재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귀결

되고, 이는 다시 학생들의 다문화적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5]. 다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교원 양성기관은 사회내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문학 과목, 다문화적 학급 운영방법과 함께 각 교과내용에 적합한 다문화적 수업 전략과 방법의 활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 강좌들을 개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예비교사들은 이 과목들의 수강 뿐 아니라, 현장실습 경험이 필요하다.

음악이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고, 표현하고, 이해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6][7].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음악교육 현실은 아직 미숙하다. 한국의 음악교육은 서양음악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어 왔고, 한국문화,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음악이 점차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서양음악과 국악이라는 이분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3]. 서양음악과 국악이라는 음악 외에, 다른 음악 문화의 유입은 사실상 거의 없었으며,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이르러,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악교육을 직접 담당할 교사들도 다문화적인 인식이나 교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변화에 기반을 두고, 악곡의 선정이나 지도·방법적 측면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 교사 양성기관의 다문화 교육 현황과 함께, 미국의 음악교과교육 영역에서 다문화 교육이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4년제 대학 중에, 음악교육 전공이 있으며, 주나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교사자격증 요건, 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되어 있는 주립대학 중 인디애나 주립대학(Indiana University), 일리노이 주립대학(University of Illinois), 아이오와 주립대학(University of Iowa), 미네소타 주립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위스콘신 주립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북텍사스 주립대학

(University of North Texas), 미시간 주립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 펜실바니아 주립대학(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워싱턴 주립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교과과정을 조사하였다. 다문화 관련 음악 개설과목을 개론과정, 연주, 지역, 종족음악학, 지도법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미국의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는 재즈음악 영역은 이번 다문화 강좌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다문화주의 연구의 출발점을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은 오래전부터 다문화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교육에 대해 고민해온 미국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원양성 교육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II. 교원양성기관의 다문화 교육

### 1. 다문화 강좌 개설 현황/특징

교사는 다문화 교육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이며, 따라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 교육에 교사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8-10]. 학생들의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비 교사의 양성과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다문화 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11]. 다문화 교육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요소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주요개념에 대한 지식, 다문화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다문화적 갈등상황 해결 능력 등을 망라한다.

최근, 초·중등 교원양성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대학(11개 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강좌개설 사업,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문화학습 동아리 사업, 다문화 교육사업 분야를 지원해왔다. 이들 중 ‘다

문화교육 강좌개설 사업’은 2009년 서울교대 등 전국 13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 1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이해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10년에는 사범대학까지 확산되어, 20개 교대 및 사대에서 20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2011년에는 30개 교대 및 사대로 확대해 30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여,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유도하고 있다[표 1].

표 1. 연도별 다문화 교육 강좌개설 사업대상 대학수

대학	2009		2010		2011		2012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수	13	10	9	8	10	10	10	11	10	14
계	13		27		30		35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35개 대학을 지원하기에 이르고 있다[표 2].

표 2. 2012년 다문화 교육강좌 개설 지원사업 대상

분류	대학명
교육대학교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 전주교대
국립사범대학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사립사범대학	경남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목원대, 우석대, 인하대, 조선대, 계명대, 서원대, 성신여대, 전주대, 동국대, 고려대, 단국대

이는 다문화 학생의 급증에 대비하여 교사 양성단계부터 예비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황,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 상담 및 인성지도,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포함하는 강좌를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예비 교사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감수성은 물론,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졸업 후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을 도울 뿐 아니라,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의 교육은 대학마다 구성과 운영이 조금씩 다르지만, 법학과적인 기관에 의한 교양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내용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사회의 이해’, ‘이주민과 지역사회 문화’, ‘주요국가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형성 및 전개 양상’, ‘교과서에 반영된 다문화’,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 지도 및 상담’ 등 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현상 이해에 중점을 둔 개론 성격의 이론 중심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간혹,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일정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대부분 1, 2학년 교양선택 과목이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과와 연관된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 2. 한국의 다문화 음악교육

다문화 음악교육(Multicultural Music Education)의 궁극적 목표는 음악교과 안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양한 집단의 음악에 대해 인지함과 동시에, 그 음악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향하는, 음악적 개념과 가치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2].

다양한 시대, 양식, 형식, 문화의 음악이 교과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탱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 1967) 선언문이나, 현대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악곡의 교체화와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 및 통합적인 음악체험을 중시한 포괄적 음악교육(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1968)은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7차 음악과 교육과정부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경험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을 음악과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세계음악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면서 활동영역에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근거한 교과서의 상당부분이 세계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 대한 교원양성과정의 음악과 교과과정에 다문화 관련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 교원양성기관 중 몇몇 교육대학원에서 월드뮤직

교육론, 사회음악교육론, 민족음악학이 다문화 음악교육 관련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음악교육론, 음악교수법 같은 과목 안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다문화 음악교육의 기본개념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당위성, 그리고 어떠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현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화라는 현실 속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이나 실제적 교수-학습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의의 및 방향 설정과 [13-16], 실제적인교수법[17-21]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 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강조하는 봉사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22].

음악교육자나 학자들이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음악시수의 부족이나,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아직까지는 학생이나 교사교육 양쪽 측면 모두 그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와 이들의 적용을 통한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III. 미국 음악 교사 교육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

### 1. 미국의 다문화 음악교육

미국은 인종, 사회계층, 언어적 배경이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한 나라로, 오랫동안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 이론에 의거해 소수 문화의 백인 문화로의 동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상반되는 것임을 지적 받으면서 ‘문화적 다원주의 이론’이 도입되었고, 결과적으

로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용광로 정책에서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이는 ‘섞어놓은 샐러드(tossed salad)’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23]. 즉, 오늘날 미국 사회가 표방하는 다문화주의는 공존하는 문화 집단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수 민족 집단이 순응하는 한, 자신의 문화적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미국의 교육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 내의 다문화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음악교육협회(MENC)는 1940년대부터 다양한 지역과 민요 등의 음악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고, 20세기 초반에는 비서구의 음악이 미국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 예일 세미나(Yale seminar)에서는 학교 음악을 재즈와 민속음악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1967년 탕글우드 심포지엄에서 그 주제를 ‘미국사회에서의 음악(Music in American Society)’으로 선정 하면서, 미국의 공립 음악교육에 있어서 다문화주의가 점차 조직적으로 지원받기에 이르렀으며, 다양한 시대, 스타일, 형식, 문화의 음악을 학교 음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였다.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에 ‘혼자 또는 같이 다양한 레퍼토어의 노래 부르기(국가기준 1)’, ‘혼자 또는 같이 다양한 레퍼토어의 곡 연주하기(국가기준 2)’, ‘음악과 다른 예술, 분야의 관계 이해하기(국가기준 8)’, ‘역사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 음악 이해하기(국가기준 9)’의 4가지 기준에 다문화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 역사, 형식의 음악을 이해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학교 교육 현장 뿐 아니라, 교사양성과정에서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전반에 걸쳐 필요 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다문화 교육의 실천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예비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 현직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4]. 미국 음악 대학교 연합(NASM: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은 1972년 교과과정에 음악 전공자들에게 다문화적 레퍼토어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의 교원교육인증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더 많은 다문화주의적 내용의 포함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1978년 이래 다문화적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과정을 교사교육 프로그램 평가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여,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들이 교수-학습과정에서 다양성과 평등성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 학급에서의 현장경험과 임상 실습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 2. 미국 음악 교사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과목

미국의 음악교육 전공자들은 초등과 중등의 구분이 없으며(K-12), 교사 자격증(Teacher's License)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주에서 인정하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과목 이수, 교육실습과 함께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악, 합창, 일반음악 교육의 3개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 다른 세부전공과목을 듣는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에 관한 과목은 세부전공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 관련 과목은 교양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육대학, 등의 단과대학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음악이나 다문화 교육을 다루는 음악에 한정되지 않은 다문화주의, 다양성, 평등에 관한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게 된다.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음악교육전공자들은 다문화 관련과목 외에,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련된 과목을 1과목 이상,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 실습 시에 일정시간을 문화, 인종, 사회적 배경이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요구하기도 한다(Penn State University). 다문화 음악교육 과목은 Chin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개론과목, 종족음악학과목, 지역에 따른 음악특징에 관한 과목, 연주과목, 학제간 융합 과목으로 분류하고, 교수법 분야를 추가하였다[25]. 모든 대학이 개론과정과 연주영역에서 다문화 음악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역별 음악은 교수의 전문분야, 학과의 사정에 따라 가장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었다[표 3].

표 3. 대학별, 영역별 다문화음악 강좌 분포

	개론	종족 음악	지역 음악	연주	교수법	융합	계
A대	1	1	7	3	0	3	15
B대	2	1	4	2	1	1	11
C대	2	0	1	1	1	0	5
D대	3	1	9	1	0	1	15
E대	1	1	1	3	1	1	8
F대	3	1	1	1	0	0	6
G대	1	0	0	1	1	0	3
H대	1	1	1	1	0	1	5
I대	1	1	2	1	3	0	8
J대	1	1	2	1	0	1	6
계	16	8	28	15	7	8	82

2.1 개론영역(Survey Courses)

다문화 음악에 관한 개론과목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의 음악을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종족음악학을 전공한 교수진에 의해 진행된다. 과목명에 대부분 ‘World’와 ‘Music’을 포함하는데, 서로 다른 음악문화의 광범위한 고찰 보다는, 세계 각국의 음악적 표현의 풍부함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며, 음악적 요소들의 문화적 맥락,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게 된다[표 4].

표 4. 대학별 개론 강좌

과목명	학교
Introduction to Music Cultures of the World(M, Non-M)	A대
Art Musics of the Non-Western World World Music & Culture	B대
World Music Music, Society and Cultures(M)	C대
World Music Introduction to World Music(Non-M) Music in Cultures	D대
Introduction to World Music(M and Non-M)	E대
Music Cultures of the World(Non-M) Music on the Move in a Globalized World(Non-M) The World of Music	F대
Introduction to World Musics	G대
World Music	H대
World Music	I대
Music Culture World	J대

중심내용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비서구 음악의 서구음악에 대한 영향 고찰, 서구와 비서구의 음악 개념과 레퍼토어를 통한 차이점에 대한 고찰,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개혁, 창의성, 독자성, 음악적 기보/표기, 분류, 미학, 음악적 훈련 등의 의미를 고찰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음악이 무엇이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개론강좌를 저학년 학생들에게 수강하게 함으로써 후에 좀 더 심화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선수과목으로 개론강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과목이라도 비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음악에 대한 지식 즉, 음악사, 장르, 용어, 악기 등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교양(General Education) 중 다양화(Diversity), 인문학(Liberal Arts) 영역의 필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2 종족음악학 영역(Ethnomusicology Courses)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은 여러 문화와 민족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의 형식과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다. 음악을 민족학, 사회학,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문화종합적인 비교를 통하여 나타난 이들의 관련성과 상호 영향을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매학기 주제를 정하여 심도있게 다루기도 한다. 현장연구가 포함되기도 하며, 상급생이나 대학원생들로 수강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워싱턴주립대의 경우는 음악교육전공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표 5. 대학별 종족음악학 강좌

과목명	학교
Seminar in Ethnomusicology	A대
The Study of Ethnomusicology	B대
Introduction to Ethnomusicology	D대
Anthropology of Music	E대
Studies in Musicology(Special Topics)	F대
Foundations of Ethnomusicology	H대
Selected Topics in Ethnomusicology	I대
Ethnomusicology	J대

2.3 지역음악 영역(Regional Study Courses)

과목명에 특정 나라나 지역이 표기되어 있는 과목들이다.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론과목 보다 지역적인 특징에 집중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학기에 따라 다른 지역에 관한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며, 개론과정과 마찬가지로 종족음악학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된다. 지역별 빈도를 살펴보면, 아시

아 음악이 가장 많고, 또 나라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프리카 음악은 순수한 아프리카 음악을 고찰하는 경우와, 아프리카 음악과 미국음악과의 합류로 만들어진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음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표 6. 지역별 음악 강좌

지역	과목명
아프리카	Music of Africa Music of Africa African Music African Music and Movement
아메리카	African-American Musical Traditions African-American Music in Historical Perspective Survey of African-American Music Music of African Americans(Non-M) Afro-American Music American Music Cultures: European-, African-, Asian-, & Latin-American
아시아	Music Cultures of the World - China, Korea, Japan(Intermediate) Japanese Music Southeast Asian Music Studies in Musicology(Chinese Music) Studies in Musicology(Arabic and Indian Tradition) Music of Asia I, II Music Cultures of the World - Near East, Central Asia, Far East, South and Southeast As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Music of North India Music of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Music of the Near East Music of Southern India Music of China Music of Japan Asian Music Music India Music of Pacific Islands Asian American Music
라틴 아메리카	Latin-American Music Latin America and Latino Popular Music and Culture Seminar in Latin America Music Music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usic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usic of Latin America
유럽	European Folk Musics Studies in Musicology(Russian Music)
2~3 지역	Music Cultures of the World - Africa, Europe, Americas(Intermediate) Music Cultures of the World - Southeast Asia, Africa, East Asia, Middle East, Europe folk music, Americas(advanced) Music Cultures of the World - Africa, Americas, and Oceania Music Cultures of the World - Folk music of eastern and western Europe and Americas Oceania, Africa, North-America, Asia: Regional Studies in Musicology

### 2.4 연주 영역(Performance Courses)

연주 분야의 강좌들은 크지 않은 규모의 앙상블을 구성하여, 세계의 다양한 악기를 다루기도 하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다양한 레파토아를 직접 연주해 보기도 하는데, 마리아치(Mariachi)나 아프리카 연주 앙상블의 경우는 노래, 악기, 춤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 성악분야의 경우, 보통 일반 합창수업은 전통적인 서구 음악의 연주를 담당하며, 작은 규모의 성악 앙상블은 비서구 문화로 부터의 민요, 지역 음악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기악의 경우, 재즈를 제외하면, 아시아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 앙상블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표 7. 대학별 연주영역 강좌

과목	학교
Non-western Music Performance Seminars in Musical Instruments of the World Black Music Ensemble	A대
Latin American Ensemble Ghanaian Music, Drumming & Dance	B대
World Music Ensemble	C대
Japanese Music Study group Beginning Gamelan Ensemble	D대
Ethnomusicology Performance Ensembles Music Education Laboratory Ensemble	E대
African Performing Ensemble Slavic Performing Ensemble Music Education Laboratory Ensemble	F대
Performance of Diverse Musical Styles	G대
Introduction to Afro-Cuban Drumming	H대
Gamelan Ensemble	I대
Mariachi Aguilas	J대

### 2.5 대학별 음악 교수법 영역 과목(Pedagogical Courses)

다문화주의적 음악 요소를 가르치는 교수-학습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음악교육 전공 교수진에 의해 진행 된다. 학교 음악 교육에서 다양한 세계 문화로 부터의 음악을 사용하는 철학적, 역사적, 방법적, 실질적 측면을 다루게 되며, 실제로, 혹은 가상의 환경에서 다문화 음악 수업 경험의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음악교육과정에 포함된 음악교수법 강좌에 다문화 음악 지도가 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표 8]에서처럼 다문화 음악의 교수학습 방법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개설된 경우도 있다.

표 8. 대학별 음악교수법 영역 강좌

과목	학교
Teaching Folklore/Ethnomusicology	B대
African Performing Arts in Education	C대
Diversity in Music Classrooms	E대
Teaching Musical Cultures	G대
Ethnomusicology in the Schools Teaching the Music of Selected Cultures World Music Education	I대

2.6 학제간 융합 강좌(Interdisciplinary Courses)

학제간 강좌는 음악을 더 광범위하게, 혹은 다른 영역과의 맥락 안에서 음악과의 연관성을 심도있게 고찰하게 된다. 국가나 지역에 의거하지 않고 정치, 문화, 성, 정체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게 되며, 종족음악학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표 9. 대학별 학제간 융합 강좌

과목	학교
Music and Labor Music and Ethnicity Gender and Music	A대
Cultural Performance	B대
Music and Islam	D대
Music and Society	E대
Music, Culture, Identity	H대
Gender and Music	J대

IV. 음악 교사교육의 방향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은 교사들이다[4].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과정에서의 다문화적 원칙에 근거한 음악수업 방법의 습득이 전제되어야 하며, 종족음악학과의 협력을 통한 종족음악과 음악교육 사이의 접점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26].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음악교육은 한국음악과 세계음악의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음악은 7차 개정교과과정 이후 점차로 체계화, 세분화되어 음악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위한 교사교육과정 또한 이론과 실기 영역을 모두 다룸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음악에 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전무하다. 세계음악이 교과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가르쳐야 할

교원양성과정의 음악과 교과과정에 다문화 음악 관련 교육은 없다. 따라서 실제 초·중등 교육 또한 새롭고 낮은 종류의 음악을 불러보거나, 감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사대상이 된 10개의 대학에서 모두 음악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과목과 다문화 음악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과과정에 명시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 제고, 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과 배경에 대한 지식, 다문화화 수업 실행 능력과 학습자료 개발 능력, 다문화 환경에서의 실습 경험을 통한 문제 상황 해결력 함양을 기본으로 하여, 개론, 종족음악학, 지역별 음악, 연주, 교수법, 실습 등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다문화적 인식 및 태도, 교과별 다문화적 지식으로 개념화하고 있었으며, 연계된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를 위한 포괄적인 노력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전반적인 다문화 이해의 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음악교과 안에서의 다문화 이해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 있었다.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다문화 음악을 인식하는, '다양성'에 대한 태도,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 교육과정 구성요인과 관련된 내용의 논의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 음악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종족음악학 전공 교수진들을 확보하고, 개론과정, 종족음악학, 지역별 음악, 연주, 지도법 등 음악 교육 분야를 세분화하여 이론과 실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 뿐 아니라, 이들의 습관, 음악적 기호, 음악의 역할, 연주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다문화 음악 교수 학습 방법과 그 적용에 대한 체계화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인류학, 철학, 언어학 분야의 학제간 융합을 시도하여,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다문화 음악교사 교육은, 우리나라 음악 교사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 교육의 개념정의,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 음악교육은 각 나라간의 문화적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알맞게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26]. 다양한 집단의 음악적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교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과관련 교사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에 맞는 자료,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별, 종족별 다양한 음악 레파토아, 문헌, 영화 등의 다문화 관련 자료를 모아 선곡, 편곡, 편집의 과정을 통해 교육내용에 맞는 체계화된 자료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음악을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원칙과 음악적 특수성에 근거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개발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지식적, 감각적 이해, 지역별, 문화권별 음악의 감상과 비교 분석, 다양한 언어, 악기, 음계, 리듬의 연주를 통한 다양성의 경험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종족음악학 분야의 교수진과 교과과정의 부재는 이러한 구체적인 개발안의 걸림돌이 된다. 사실상,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교수진들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내용의 심층화, 다양화를 위한 학제간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역량 개발을 위한 융복합 교양과목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관련 강좌나 연수 등, 활동 기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과 이를 위한 교사교육이 일회성 이슈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류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 등 관련 인문 사회과학과 교과교육학 간의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 시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V. 요약 및 제언

현대 사회는 상호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많은 나

라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 노동자, 새터민, 국제 결혼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민족 국가로 인식하던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민족 국가로서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초·중등 교사 양성기관에서는 다문화 교육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들이 다문화 교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27].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교육대학,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1, 2학년 교양선택 과목에 그치고 있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과교육 교사로서의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함께, ‘다문화’를 교육적 주제로 다루는, 관련 교과나 전공영역에서의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예비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 능력과 다문화적 교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문화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점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교과교육의 전문적 지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는데 반하여 실제 수업과 관련된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11]. 따라서, 보다 내실화된 교과과정으로서의 교사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음악을 위한 교사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다층적인 연구를 통한 다문화 음악에 관한 학습 자료의 개발, 수업 방법 연구,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개발과 이를 실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하여 수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실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학교 및 학습의 다문화적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능력, 다문화 학교, 학습의 체험을 포함하는 현장실습의 강화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서은숙, “한국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417-427, 2009.
- [2] P. Campbell, “Music instruction: Marked and molded by Multiculturalism,” *American Music Teachers*, Vol.42, No.6, pp.14-17, 1993.
- [3] 박지영, “미국 다문화 음악교육의 역사적 지평과 그 중요성”, 음악과 민족, 제43호, pp.339-368, 2012.
- [4] J. A. Banks, *Race, Culture, and Education*, Routledge, 2006.
- [5] 전경자,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인식과 실행에 관한 사례연구*, 경인교육대학원학위논문, 2010.
- [6] W. Schmid, “World Music in the Instrumental Program,” *Music Educators Journal*, Vol.78, No.9, pp.41-45, 1992.
- [7] K. Norman, “Music Faculty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139, pp.37-49, 1999.
- [8] J. A. Banks and C. A. M. Bank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 [9] Clark, “Language and Culture: Critical Components of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The Urban Review*, Vol.28, No.2, pp.185-197, 1996.
- [10] 장원순, “한국사회에 적합한 다문화 교사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 교육, 제18권, 제1호, pp.57-79, 2009.
- [11] 모경환, 최충옥, 임현경, “다문화 교사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0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2권, 제4호, pp.31-53, 2010.
- [12] 김향정,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한국 다문화 음악 교육의 방향”, 음악과 민족, 제38권, pp.371-398, 2009.
- [13] 권덕원,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2호, pp.58-71, 2000.
- [14] 조효임, 주대창,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 음악연구, 제33권, pp.263-282, 2004.
- [15] 함희주, “초등학교 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25호, pp.105-128, 2003.
- [16] 민경훈, “세계화에 있어서 다문화적 음악 교육의 과제와 전망”, 음악과 민족, 제28호, pp.432-445, 2004.
- [17] 안재신, “유아 음악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다문화적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제21호, pp.1-22, 2001.
- [18] 신지원, *다문화적 음악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 학습 방안연구*, 부산교육대학교석사논문, 2005.
- [19] 박준현,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06.
- [20] 김용희, 방금주, “네가지 학습모형을 사용한 다문화 음악수업 지도방안 개발”, 음악과 민족, 제33권, pp.305-337, 2007.
- [21] 권자영, *한국적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의 대안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학위논문, 2007.
- [22] [http://saladtv.kr/document\\_srl=345957](http://saladtv.kr/document_srl=345957).
- [23] 권충훈, 김훈희,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경험 선정 아이디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 pp.293-302, 2008.
- [24] 장인실, “다문화 교육이 한국 교사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3호, pp.409-431, 2003.
- [25] L. Chin,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University of Oregon, Dissertation Abstract, 1996.
- [26] 민경훈,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93-111, 2009.
- [27] 모경환, 이혜진, 임정수, “다문화 교사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0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제1권, 제1호, pp.21-35, 2010.

저 자 소 개

이 가 원(Ka-Won Lee)

종신회원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기악과(음악학사)
- 1996년 9월 : 미국 Yale University(음악석사)
- 1999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음악교육학 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 음악교육과정, 음악교수법, 교사교육